

자영업자 연체율 14배 폭증

“이자도 못 갚아” 자금난 휘청
건설업 5.6% ↑ 전 업종 침체

광주은행 대출로 본 지역경제 1년

김민수(가명·45·광주시 북구)씨는 지난해 2월 은행에서 8천만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상가에 세탁소를 차렸지만 1년만에 연체자로 전락했다.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세탁물이 끊겨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는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매출이 떨어져 5개월째 이자를 못내고 있다”며 “조만간 문을 닫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지난 1년 사이 글로벌 금융위기

를 겪으면서 은행 빚을 갚지 못해 무너지는 자영업자들과 기업이 늘어나면서 은행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김씨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14배 가까이 폭증하는 등 이·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주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기업대출 잔액을 20개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7조1천419억원 대출에 1.62%이던 연체율이 1년만인 올해 5월 7조2천416억원 대출에 연체

■업종별 연체율 (단위:%)

업종	연체율	
	2008. 5	2009. 5
제조	0.62	1.29
건설	1.18	5.59
개인서비스	0.59	8.16
부동산 및 임대	1.87	2.9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0.44	1.36
숙박 및 음식점	3.43	2.87

율 2.32%로 0.70%포인트 늘었다. 은행들은 대출을 받은 후 3개월이 상 이자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연체자로 분류한다.

업종별로는 카센터, 이·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제과점, 주점 등 ‘개인 서비스업’ 연체율이 지난해 0.59%에서 올해 8.16%로 무려 13.8배나 급증했다. 개인 서비스업 대출 잔액 1천423억원 중 무려 116억원이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중인 셈이다.

전체 대출의 16.6%를 제조업에 이어 두번째로 대출 비중이 높은 ‘건설업’은 올해 들어 정부와 채권단의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여파로 연체율이 5.59%를 기록해 1년만에 4.73배나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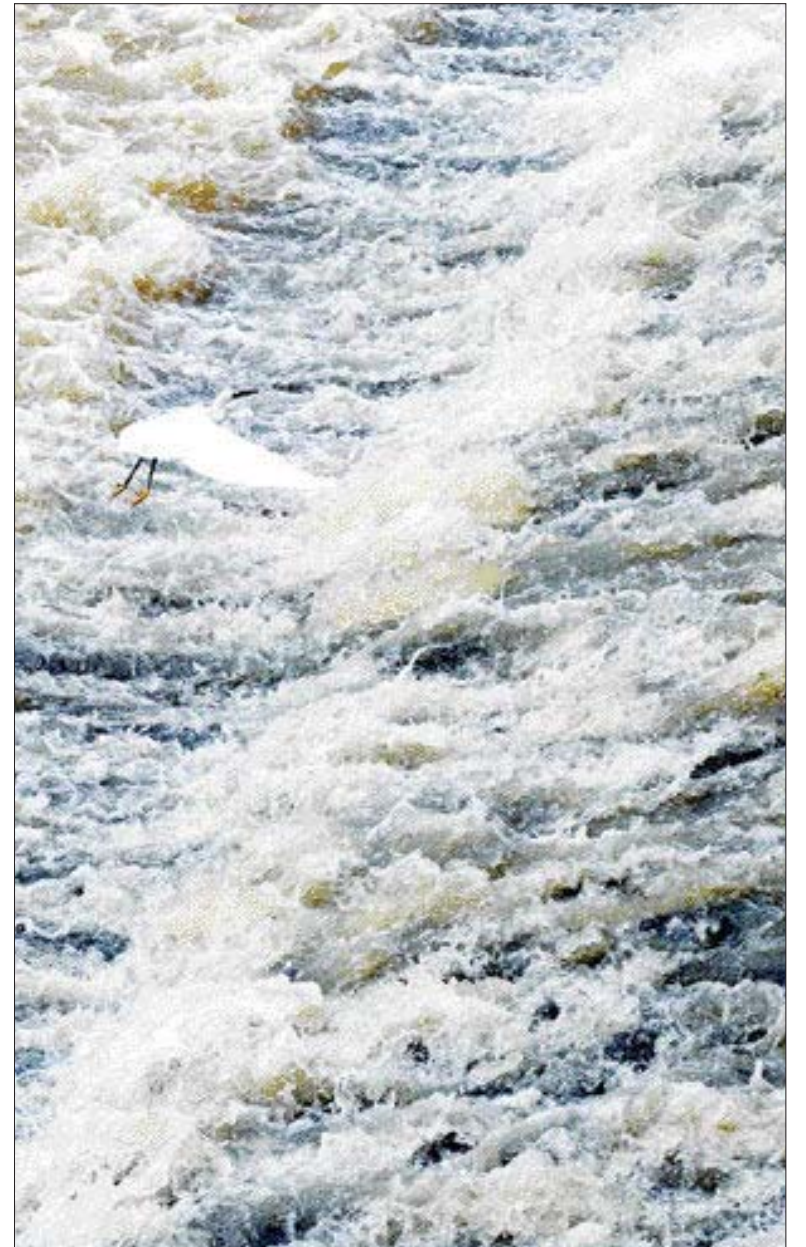
공공 얼어붙은 건설경기로 인해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도 2.91%로 1년만에 1.04%포인트 늘었

고 ‘숙박 및 음식점업’ 연체율도 2.87%로 평균 연체율을 상회했다.

신지여 병·의원과 약국이 속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연체율도 지난해 0.44%에서 올해 1.36%로 상승해 경기침체 여파가 전 업종에 걸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연체율은 실물경제를 반영하는 중요한 경제지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업종에 영향을 미쳤지만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먹이 찾는 왜가리 29일 왜가리 한 마리가 정미기로 물이 불어난 담양 관방천에서 먹잇감을 찾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강우량은 여수 101mm를 최고로 ▲광주 75mm ▲장성 68.5mm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30일 오전부터 광주·전남지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어 10~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대통령 “임기내 대운하 추진 안해”

라디오 연설서... “4대강 살리기 집중 지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의 임기내 추진 포기를 선언했다. <관련기사 3·5면> 그러나 이 대통령은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8차 정례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임기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다”고 대운하 포기 배경을 밝혔다.

이는 대운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 경우 정치적 논쟁은 물론 자칫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면서 생태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국토의 갖출인강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 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서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생태복원에 성공한 서울의 한강, 울산의 태화강을 예로 들며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의 집중적인 예산 투입 등이 이뤄지면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발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민생사법 특별사면 시기는 광복절을 하는 것으로 예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신지에 시즌 2승...상금랭킹 1위

합평골프고 출신 ‘지존’ 신지에(21·미래에셋·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시즌 두번째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관련기사 18면> 신지에는 2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로커스트리힐 골프장(파72·6천365야드)에서 열린 웨그먼스LPGA 최종 라운드에서 1타를 줄이며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 2위권을 무려 7타차로 따돌리며 여우

있게 우승컵을 차지했다. 지난해 LPGA 투어에서 3승을 수확한 신지에는 통산 승수도 5승으로 늘렸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30만달러를 받은 신지에는 시즌 상금 100만달러를 돌파하며 상금 랭킹 1위(100만1천달러)로 올라섰고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도 선두(90점)로 나섰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10·11면

알림

제54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
7월 4일(토) 오후 2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전통의 종합예술제인 '제54회 호남예술제'가 뜨거운 성취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일보사는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각부문 개인과 단체 최고상 수상자들을 초청, 작품 발표회를 갖습니다. 문화예술의 터전을 가꾸어 미래의 스타들에게 마음있는 박수를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 주최: 광주일보사
- 협찬: 삼성생명

호남예술제 최고상 수상자·심사평 12·13면

신양파크호텔
여름 해당 패키지
예약료 27,000원부터 (세금포함)
예약실 062-228-4711-2
대표전화 062-228-8000

한국방과후학교 교사연임회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교사 연임회를 결성합니다.

방과후학교 교사 연수형 모임

- 목적: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사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수형 모임을 결성한다.
- 연수형 모임의 구성: 방과후학교 교사 10명 이상을 구성하며,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사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수형 모임을 결성한다.
- 연수형 모임의 운영: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사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수형 모임을 결성한다.

방과후학교 교사 연수형 모임의 구성

구분	내용
1. 목적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사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수형 모임을 결성한다.
2. 연수형 모임의 구성	방과후학교 교사 10명 이상을 구성하며,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사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수형 모임을 결성한다.
3. 연수형 모임의 운영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사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수형 모임을 결성한다.